소개

“리빙 온 에어”

애트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흥미로운 전시회

주요 특징:

- **디자인 이야기:** 4 개의 챕터로 구성된 90 년 이상의 독창성과 장인 정신
-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찬사:** 주변 온도의 경미한 변화만으로 48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영구 운동’ 시계 콘셉트
- **몰입감 넘치는 경험:** 19 가지 다양한 애트모스 컬렉션과 아카이브 자료, 기술 도면, 워치메이킹 시연을 만나보는 시간

올해 4 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기간 동안, 예거 르쿨트르는 애트모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전시회인 '리빙 온 에어(Living on Air)'를 선보입니다. 1928 년에 발명된 애트모스는 기온의 미세한 변화로 구동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장착된 경이로운 기계 장치이자 예술 작품입니다. 매혹적인 오브제인 애트모스는 마법 같은 작동 방식만큼 메커니즘과 캐비닛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리빙 온 에어'는 무료로 공개되며 2025 년 4 월 8 일부터 13 일까지 밀라노 역사 지구에 있는 빌라 모차르트(Villa Mozart)에서 전시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번 전시에서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현대적 디자인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애트모스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4 개의 챕터를 통해 애트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회

1833 년 발레드주(Vallée de Joux)에서 설립된 예거 르쿨트르는 100 년 이상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년의 노하우와 혁신을 융합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메종은 메커니즘의 정확성과 기술적 독창성 및 미적 아름다움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0 년 이상 애트모스의 놀라운 기술력을 지켜온 예거 르쿨트르는 기술 개선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1970 년대부터는 이 천재적인 메커니즘을 재해석하기 위해 선도적인 디자이너와 예술 공예의 장인들을 영입했습니다.

9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19 가지 다양한 애트모스로 구성된 전례 없는 컬렉션과 아카이브 자료, 기술 도면 그리고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직접 선보이는 워치메이커의 시연까지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리빙 온 에어'는 4 개의 챕터를 통해 이 특별한 오브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원: 불가능해 보이는 꿈(THE GENESIS: The (Seemingly) Impossible Dream)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계에 매료된 인류의 이야기를 되돌아봅니다. 그 기록은 기원전 1 세기 알렉산드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며, 1928 년 스위스 방사선 엔지니어인 장-레옹 휘테(Jean-Léon Reutter)가 물리 법칙을 거스르며 영구 운동의 원리를 프로토타입의 시계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재 애트모스 0 으로 알려진 초기 제품을 구매한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는 이 뛰어난 성능의 메커니즘을 실현하려면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휘테에게 르쿨트르 & 씨(LeCoultre & Cie) 매뉴팩처와의 협업을 통해 상업 생산을 위한 제품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메커니즘: 애트모스의 내부(THE MECHANISM: Inside the Atmos)**에서는 애트모스 가 지금까지 제작된 다른 어떤 메커니즘보다 영구 운동에 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트모스는 일상적인 온도 변화를 통해 시계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관객들은 실시간 시연을 통해 열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무브먼트에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멤브레인을 통해 시계를 구동하는 스프링에 연결된, 가스를 채운 밀폐형 캡슐에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가스가 팽창하면서 아코디언의 바람통처럼 멤브레인이 팽창 및 수축하면서 '숨을 쉬는 듯' 스프링이 와인딩됩니다.

디자인: 예술품으로서의 애트모스(THE DESIGN: Atmos as an Objet d'Art)는 애트모스를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키는 장식 공예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예거 르쿨트르와 선도적인 현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애트모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전시품 중에는 유명 디자이너인 마크 뉴슨(Marc Newson)과 협업하여 제작한 시리즈 모델과 목재 및 밀짚 상감 세공 장인이 완성한 탁월한 디자인의 애트모스 캐비닛 등이 있습니다.

소량의 에너지만을 생산하는 애트모스 시스템의 특성상, 무브먼트는 최대한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시간 기록 그 이상의 가치(THE COMPLICATION: Beyond Timekeeping)** 챕터에서는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이 에너지 소비량에 큰 변화 없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계절 및 문페이즈와 같이 길고 느린 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컴플리케이션이야말로 애트모스에 이상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시 작품 중에는 지금까지 제작된 애트모스 중 가장 정교한 모델인 애트모스 텔루리움도 있습니다. 지구, 태양, 달의 실제 주기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3 차원 기계 장치, 텔루리온을 장착한 이 모델은 조디악 캘린더에 맞춰 달과 계절을 표시하며 계절 변화를 제외하고 2412 년까지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 역량, 조용히 움직이는 밸런스 휠과 신비로운 작동 방식까지, 애트모스는 출시된 지 90 여 년이 지났지만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시계라는 고유한 위상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빙 온 에어’는 2025 년 4 월 8 일부터 13 일까지, 밀라노 모차르트 거리 9 번가의 빌라 모차르트(1 층)에서 진행되며, 오전 11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4 월 9 일 수요일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bit.ly/Atmos-LivingOnAir 으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펠로우십 전시회

예거 르쿨트르는 ‘리빙 온 에어’와 동시에,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중에 진행되는 두 번째 행사에서 호모 파베르 펠로우십의 주요 지원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미켈란젤로 재단이 후원하는 '오늘의 장인, 미래의 인재를 만나다(Today’s Masters Meet Tomorrow’s Talents)' 행사가 브레라의 카사 델리 아르티스티(Casa degli Artisti)에서 개최됩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제 2 회 호모 파베르 펠로우십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의 장인과 떠오르는 인재, 즉 '펠로우'로 구성된 23 개 팀이 디자인하고 수작업으로 완성한 공동 작품을 선보입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 듀오가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귀중한 기회입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열린 '리빙 온 에어' 전시회의 3D 렌더링

애트모스 소개

1928 년에 탄생한 애트모스는 다른 시계와는 차원이 다른 시계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의 광범위한 노하우로 탄생한 발명품인 애트모스는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트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으로 구동됩니다. 섭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이틀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해 왔으며, 마침내 애트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애트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래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애트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펠로우십 소개

호모 파베르 펠로우십(Homo Faber Fellowship)은 장인들과 떠오르는 인재들을 7 개월간 후원하는 전문적인 통합 프로그램으로, 미켈란젤로 재단(Michelangelo Foundation)이 주최하고 예거 르쿨트르가 후원합니다. 2024 년 9 월, 베니스 국제 예술대학(International University of Art)에서 시작된 두 번째 에디션은 펠로우들을 대상으로 ESSEC 비즈니스 스쿨과 파사오 푸트로(Passa Ao Futuro)가 진행하는 1 개월간의 창의적인 기업가 마스터 클래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펠로우들은 듀오로 짝지어진 유럽 전역 마스터 장인들의 아틀리에에서 6 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23 개 팀은 예거 르쿨트르가 선정한 테마인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얻어, 공동 작품을 디자인하고 수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homofaber.com**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